

국어 복합동사에 대하여

黃 炳 淳

<목 차>

- I. 들 머 리
- II. 복합동사란?
- III. 복합동사 형성원리

- IV. 복합동사 구성순서
- V. 마 무 리

I. 들 머 리

인간의 생활이 새로워지는 한, 언어도 새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는 언어도 표현유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낱말은 무한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낼 필요가 따르게 된다. 이러한 요구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의 하나가 복합동사이다.

복합동사는 이미 있는 낱말을 결합시켜 만든 낱말이다. 낱말을 만들 때는 복합동사를 만들 때와 같이 이미 있는 낱말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 낱말을 만드는 것이 쉽게 사회성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국어에 복합동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유에 의해 생성되는 복합동사라고 하여 모든 동사가 다 복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성되는 내면에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복합동사들만 생성되도록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이다. 근간에 이러한 규칙을 찾고자 하는 몇몇 연구¹⁾가 있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다.

- 1) 나는 급히 병원에 뛰어갔다.
- 2) 독수리가 병아리를 물어갔다.
- 3)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싸고돈다.

1) 손호민(1976), 김기혁(1981), 김창섭(1981)을 들 수 있다.

4) 그집은 골동품을 사고파는(매매하는) 집이다.

5) 그는 사라져버렸다.

첫째, 1)의 ‘뛰어가다’와 2)의 ‘물어가다’는 다같이 ‘-어’에 의해 결합된 복합동사인데, 왜 1)은 ‘뛰어가다’의 ‘가다’가 격을 지배하고, 2)는 ‘물어가다’의 ‘물다’가 격을 지배하는가?

둘째, 3)의 ‘싸고뜯다’와 4)의 ‘사고팔다’는 다같이 ‘-고’에 의해 결합된 복합동사인데 왜 두 구성동사 간의 의미관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고’에 의해 결합된 복합동사와 ‘-어’에 의해 결합된 복합동사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넷째, 왜 ‘타고나다’와 ‘끌어안다’는 복합동사이고, ‘먹고가다’나 ‘찾아만들다’, ‘먹어준다’는 복합동사가 아닌가?

다섯째, 5)의 ‘사라져버리다’는 복합동사로 볼 수 없는가.

여섯째, 생성 가능한 복합동사는 어떤 원리를 따르는가?

그간의 연구가 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국어의 복합동사 형성규칙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 데 있다. 대개의 국어 복합동사가 접속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한 듯하다. 그러나 접속문에서 복합동사가 되기까지 어떤 규칙이 내재되어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위에 제기된 문제도 국어복합동사 형성원리를 밝히고 조동사도 복합동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를 알아보는 데 있다.

II. 복합동사란?

이 글에서 다루는 복합동사²⁾는 두 동사가 ‘-어’나 ‘-고’에 의해 결합된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복합동사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복합동사도 낱말이란 점을 중시하여 형태론적 차원³⁾에서 정의하기로 한다. 그럴 경우 복합동사는 “의기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낱말이 된 것”⁴⁾이라는 정의로 뜻을 매길 수 있다. 이러한 정의도 아

2) 이를 합성 동사라고 하는 이드 있으나, ‘합성’이란 말은 ‘합성수저’에서도 같이 구성요소의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고 생각하여 복합동사라고 했다.

3) ‘형태론적 차원’이라고 한 것은 형태론이 단어의 내적구조를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이에 대해서는 Lyons(1968: 194) 참조.

4) 유사한 정의가 최현배(1971: 149, 687)에도 있다.

래와 같은 문제가 있는 한 완벽한 것일 수는 없다.

6) 김군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6)' 김군이 아버지를 찾아 (우리집에) 왔습니다.

모든 복합동사가 다 이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6)의 '찾아오다'는 6)'와 같은 접속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찾아오다'의 '—아'는 단지 두 낱말 '찾다'와 '오다'를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두 명제 '김군이 아버지를 찾'과 '김군이 (우리집에) 오'를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찾아오다'의 '—아'는 단순히 두 낱말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아'는 형태론적 차원을 넘어선 '—아'이겠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의 복합동사에 대한 정의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에 의해 복합동사가 지닌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아래의 공통점으로 복합동사에 대한 정의가 지닌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의를 갖기로 한다.

첫째, 복합동사는 두 동사의 결합 결과 한 낱말이 되는 것이므로, 복합동사를 이루는 구성동사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복합동사를 이루는 두 동사 사이에 '—서'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관계화 변형에서 복합동사가 이루는 두 동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은 복합동사가 하나의 낱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복합동사를 이루는 두 동사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복합동사는 하나의 낱말이므로 분리된 경우와는 의미가 다르게 된다.

7) 그들은 이미 강을 건너갔다.

7)' 그들은 아직 강을 안건너갔다.

8) 그들은 이미 강을 건너서, (어딘가로) 갔다.

8)' *그들은 아직 강을 안건너서, (어딘가로) 갔다.

7)의 '건너가다'가 8)과 같은 구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7)의 '건너가다'는 8)의 '건너서 가다'와 의미가 다르다. 이는 7)'가 문법적인 문임에 비해 8)'가 비문임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둘째, 복합동사는 낱말생성이란 의미를 지녀야 한다. 국어 복합동사는 하의어를 만드는 것이다. 복합동사의 상의어는 복합동사의 구성동사 가운데 뒤구성동사이다. 이는 우리말에서 앞에 놓이는 것은 수식성분이고 뒤에 놓이는 것이 피수식성분이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복합동사는 이처럼 하의어 생성에 쓰이는 것이므로, 하의어라 하기 어려운 '높디높다'나 '걸디걸다'

4 嶺南語文學(第13輯)

등은 복합동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들은 ‘높다’나 ‘점다’의 하위어이라고 하기 어렵다. ‘높다’와 ‘높디높다’는 외연의미가 같다.

세째, 복합동사는 하나의 낱말이므로 복합동사는 한 동사의 엄밀하위범주화를 이룬다.

9) 형사가 경찰서로, 도둑을 잡아 갔다.

10) 형사가 도둑을 잡아갔다.

10)의 ‘잡아가다’는 한 동사로 하위범주화를 이루고 있으므로 복합동사이다. 그러나, 9)가 문법적이라면, 9)의 ‘잡아가다’는 복합동사가 아니다. 9)에서 ‘경찰서로’는 ‘가다’와 ‘도둑을’은 ‘잡다’와 하위범주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9)는 ‘도둑을 잡아’가 삽입절로 된 부분이다. 이는 9)가 ‘경찰서로’뒤에 쉼이 있게 됨에서도 알 수 있다.

Ⅲ. 복합동사 형성원리

복합동사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국어 복합동사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가) ㄱ. 날아가다, 뛰어가다, 흘러내리다, 뛰(어)놀다, 걸터앉다.……

ㄴ. 집어주다, 끌어놓다, 끌어내다, 밀어내다.……

(나) 오(고)가다, 주고받다(授受), 사고팔다(賣買), 겹(교)붙다, 오르(고)내리다.……

(다) 끌어가다, 잡아가다, 찾아오다, 물어가다.……

(라) 타고나다, 차고앉다, 파고들다.

(마) V₁어보다, V₁어버리다, V₁어가다, V₁어때다.……

(바) V₁고말다, V₁고싶다, V₁고나다, V₁고보다.

아래는 위의 복합동사가 문장에 쓰인 경우이다.

11) ㄱ. 하늘에 새들이 날아간다.

ㄴ. 가게주인이 동생에게 파자를 집어주었다.

12) 사람들이 여길 자주 오(고)간다.

13) 경찰이 도둑을 끌어갔다.

14) 그 사람은 정기를 타고났다.

15) 마차가 가버렸다.

16) 그는 집에 가고말았다.

예문의 복합동사는 언뜻보아 셋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11)과 12)의 복합동사는 뒤구성동사가 격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13)~16)의 복합동사와 다르다. 13)~16)의 복합동사는 복합동사의 앞구성동사가 격을 지배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13)과 14)의 복합동사는 두 구성동사의 어휘의미가 복합된 것임에 비해 15)와 16)의 복합동사는 두 구성동사의 상적 의미가 복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15)와 16)의 복합동사는 11)~14)의 복합동사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인 듯하나 11)과 12)의 복합동사를 13)과 14)의 복합동사와 구분하는 것은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11)과 12)의 복합동사는 동일한 동사끼리 결합되었기 때문에 뒤구성동사가 격을 지배하고, 13)과 14)의 복합동사는 타동사와 자동사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타동사인 앞구성동사가 격을 지배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Roeper & Siegel(1978)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듯하다. Roeper & Siegel(1978 : 208)에서는 동사구 복합어(Verbal compound)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복합되는 두 낱말이 인접해야 한다⁵⁾고 했다. 아래 17)이 가능한 것은 17)'에 'peace'와 'make'가 인접해 있기 때문이고 18)이 불가능한 것은 18)'에서와 같이 'make'와 'quick'가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17) peace making 17)' she makes peace
18) *quick-making 18)' she makes peace quickly
(18)" *she make quick(ly))

그리고 결합된 두 낱말이 인접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규칙이 적용되어 결합될 두 낱말 사이에 놓인 변항이 제거되어야 동사구 복합어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이때 변항을 제거하는 조정규칙을 변항삭제(Variable Deletion)라고 했다.⁶⁾ 동사구 복합에 대한 이러한 규칙은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를 이루는 동사구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복합동사중 가)~라)는 접속문에서 비롯된 것⁷⁾이라 한다. 이점을 수용하면 이 글의 복합동사는 하위범주화를 이루는 동사구 내에서 형성된 언어의

5) Repoper & Siegel (1978 : 208)에서는 이를 인접원리(first-sister principle)라 했다.

6) Reoper & Siegel (1978 : 212) 참조.

7) 김기혁(1981), 김창섭(1981) 참조.

동사구 복합어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동사구 복합어 형성에 요구되는 인접원리(First-Sister Principle)와 변항삭제(Variable Deletion)는 이들 복합동사 형성규칙으로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11)~14)의 복합동사가 접속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위의 두 원리에 의해 복합동사의 형성과정과 조건을 알아보기로 한다. 국어에서 ‘-아’와 ‘-고’에 의한 접속문은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19) ㄱ. 잠이 와(서) 침실로 갔다.
 ㄴ. 질이 좋아(서) 값이 비싸졌다.
- 20) ㄱ. 나는 걸어(서) 여기에 왔다.
 ㄴ. 경찰은 도둑을 잡아(서), 경찰서로 갔다.
 ㄷ. 나는 방에서 마당으로 나가(서), 마당에서 뛰었다.
- 21) ㄱ. 피가 검고, (피가) 붉다.
 ㄴ. 사람들이 여기에 오고, (사람들이) 여기서 간다.
 ㄷ.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22) ㄱ. 그는 경기를 타고(서), 세상에 났다.
 ㄴ. 그는 밥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ㄷ. 손님들이 다 가고(서)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9)는 인과관계에 있는 두 명제⁸⁾를 이은 접속문이고 20)은 당연논리상 딸림관계에 있는 두 명제를 이은 접속문이다. 인과관계도 당연관계의 하나이다. 당연관계이기 때문에 앞명제가 부정된 19ㄱ)나 20ㄱ)는 비문이 된다.

- 19) ㄱ' *잠이 안와(서) 침실로 갔다.
- 20) ㄱ' *나는 안걸어(서) 여기서 왔다.

그리고, 당연관계에서 앞명제가 뒤 명제에 딸리는 것이므로 뒤명제가 앞명제보다 시간상으로 앞선 것일 수는 없다.

21)은 등동한 무제값을 지닌, 대립된 두 명제가 접속된 문이다. 이 때 두 명제는 시간상으로 전후관계에 있는 것이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딸리는 것이 아니다. 이 명제는 독립된 두 명제이다. 이러한 접속문의 ‘-고’에 ‘-서’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두 명제가 독립된 것이기 때문인 듯하다. ‘-서’는 지속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전후관계나 딸림관계에 있는 두 명

8) ‘명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어’나 ‘-고’ 앞에 양상소가 놓이지 않는다는 점에서이다. 접속문에서 복합동사가 형성되는 것도 접속된 것이 명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제를 잇는 ‘-아’나 ‘-고’에 이어진다. 22)는 반드시 앞명제가 뒤명제보다 시간상 앞선 관계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앞명제가 당연히 뒤명제에 딸리는 것은 아니다. 앞명제가 부정된 22ㄱ)나 22ㄴ)가 문법적임도 이에 연유한 것이다.

22) ㄱ' 그는 정기를 안타고(서) 세상에 났다.

ㄴ' 그는 밥을 안먹고(서) 학교에 갔다.

22)는 두 명제가 전·후관계에 놓인 것이라는 점에서 전·후로 대립된 두 명제가 접속된 문이다. 즉 한 공간에서 시간상으로 전후하여 일어난 두 명제를 접속시킨 것⁹⁾인데, 이 두 명제의 관계가 당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러한 접속문은 전·후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시간상으로 대립되어 나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가)~라)의 복합동사는 접속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가)~라)의 복합동사는 위의 19)~22)와 같은 접속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19)~22) 모두에서 복합동사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23) ㄱ. *잠이 침실로 와가다.

ㄴ. *질이 값이 좋아비싸다.

24) ㄱ. 나는 여기에 걸어왔다.

ㄴ. 경찰이 경찰서로, 도둑을 잡아 갔다.

ㄴ'. 경찰이 도둑을 잡아갔다.

ㄷ. *나는 마당에서, 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뛰었다.

ㄷ'. 나는 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뛰었다.

ㄷ''. *나는 마당에서 나가뛰었다.

25) ㄱ. 피가 점(교)뿜다.

ㄴ. 사람들이 여기에 오(교)간다.

ㄷ. *예술은 인생은 짧고 길다.

26) ㄱ. 그는 정기를 타고났다.

ㄴ.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갔다.

ㄷ. 식구들이 한자리에, 손님들이 다 가고모였다.

위의 예 가운데 복합동사가 형성된 것은 24ㄱ), 24ㄴ'), 24ㄷ'), 25ㄱ),

9) 남기십(1980)에선 22)의 ‘-고’를 시간나열, 21)의 ‘-고’를 공간나열이라 했다.

25ㄴ), 26ㄱ)뿐이다. 복합동사가 형성되기 이전의 원문과 이들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아울러 복합동사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가)~(라)의 복합동사에 담긴 규칙을 제시해 줄 것이다. 복합동사가 형성된 접속문은 인접원리가 적용될 수 있거나 변항이 삭제될 수 있는 것이다. 24ㄱ)의 원문인 20ㄱ)은 삽입절¹⁰⁾을 지닌 복문으로 바뀌면 아래 26)이 된다.

26) 나는 여기에, (나는) 걸어(서), 왔다.

26)은 두 낱말 ‘걸어’와 ‘오다’가 인접해 있다. 따라서 복합동사 ‘걸어오다’가 형성된다.¹¹⁾ 24ㄴ)의 원문인 20ㄴ)은 삽입절을 지닌 복문으로 바뀌면 24ㄴ)이 된다. 그러되면, ‘잡아’와 ‘가다’가 인접하게 되나 이 경우는 복합동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복합동사는 하나의 낱말이라 하나의 하위범주화를 이뤄야 하는데, 24ㄴ)은 두 종류의 하위범주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ㄴ)에서 복합동사가 형성되자면, ‘잡아’와 ‘가다’ 사이에 놓인 변항 ‘경찰서로’가 삭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합동사를 만들기 위해 두 동사 사이에 놓인 모든 변항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삭제되려면 삭제되는 변항이 그 문내의 어떤 것과 동일한 것이거나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0ㄴ)에서 ‘경찰서로’가 삭제될 수 있는 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아 가는 곳이 ‘경찰서’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복합동사가 형성된 문이 24ㄴ)이다. 24ㄷ)의 원문인 20ㄷ)은 ‘나가’와 ‘뛰다’ 사이의 변항 ‘마당에서’가 삭제되면 24ㄴ)에서와 같이 복합동사 ‘나가뛰다’가 형성된다. 그런데 20ㄷ)의 앞명제가 삽입절로 바뀐 24ㄷ)이 비문인 것은 ‘마당에서’와 ‘방에서’의 다찰 때문이다. 24ㄷ)가 비문인 것은 24ㄷ)이 비문인 점과 24ㄷ)의 ‘방에서’가 삭제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25ㄱ)은 원문인 21ㄱ)의 두 동사 사이에 놓인 변항 ‘피가’가 앞명제의 것과 동일한 것이라 쉽게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5ㄴ)도 25ㄱ)과 같다. 26ㄱ)도 ‘타고’와 ‘나다’ 사이의 변항 ‘세상에’가 삭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22ㄴ)과 22ㄷ)은 두 동사사이의 변항이 생략될 수 없어 비문이다. 인접하도록 하기 위해 26ㄴ)이나 26ㄷ)과 같이 삽입절을 지닌 복문으로 바

10) 삽입절에 대해서는 김영희(1978) 참조.

11) 이때 상적 의미를 지닌 ‘-서’는 삭제된다. ‘-서’는 ‘지속’이란 상적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어휘의미가 복합될 때는 삭제되어야 한다.

줄 수는 있으나, 이러되면 “하나의 하위별주화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복합동사의 특성에 벗어나므로 복합동사가 형성될 수 없다. 19ㄱ)이나 19ㄴ), 22ㄴ)등이 복합동사를 이룰 수 없는 것도 변항이 삭제될 수 없어 두 동사가 인접하지 않거나 삽입절을 형성해 인접화되어도 복합동사의 특징인 하나의 하위별주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일 주어를 지닌 두 명제가 접속된 문이어야 복합동사가 형성되는 것도 위와 같은 논리에서이다. 그리고 26)과 같은 접속문에서 복합동사가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은 시간상의 전후관계 대립으로 나뉘된 두 명제에서 두 동사 사이의 변항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24)와 같은 접속문에서 복합동사가 잘 형성되는 것은 두 명제가 당연 관계이어서 두 동사사이의 변항이 쉽게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상을 토대로 하면 (가)~(라)의 복합동사는 접속문의 두 동사구의 동사 결합으로 이뤄진 구형복합동사와 할 만하다. 그러나, (마)(바)의 복합동사는 이와 다르다. 20), 21)의 복합동사가 두 명제로 분리될 수 없음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복합동사의 뒤동사는 상황의미로 쓰이는 것이라서 두 동사의 상적의미에 의해 결합여부가 결정된다. 뒤동사가 격과 무관한 것도 이에 연유된 것이다. 격과는 무관하나 이러한 복합동사도 구형복합동사와 같이 결합된 두 동사가 공히 선택제약관계를 이룬다.

27) ㄱ. 나는 그곳에 가보았다.

ㄴ. *꽃잎이 떨어져보았다.

27ㄱ)이 문법적이고 27ㄴ)이 비문법적임은 27)의 ‘가다’와 ‘보다’는 유정명사주어와 선택제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 비해 27ㄴ)에서는 이러한 선택제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동사는 선택제약관계에서 긴밀한 관계¹²⁾에 있는 두 동사가 상적의미에서 달리거나 대립된 관계에 있을 때 복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V_1 어 V_2 ’꼴은 ‘ V_1 ’의 상적의미가 ‘ V_2 ’의 상적의미와 같리는 것이고, ‘ V_1 고 V_2 ’꼴은 ‘ V_1 ’의 상적의미가 ‘ V_2 ’의 상적의미와 대립된 경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복합동사를 상복합동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상복합동사의 뒤구성동사를 생산성이 강하다는 점과 구형복합동사와 달리 상적의미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 및 자립성이 없다는 점에서 복합동사에서 제외시켜왔다. 상복합동사의

12) 손호권(1973)에선 상복합동사를 이루는 두 동사의 밀착관계를 10가지 통사 특성으로 증명하고 있다.

뒤구성동사가 이러한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은 상복합동사가 상황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두 구성동사의 상적 의미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동사는 상적 의미에서 하의어가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강하고, 격의미가 아닌 상적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복합동사는 뒤동사의 하의어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상복합동사는 상적 의미에서 뒤동사의 하의어인 셈이다.

이상을 통해 국어 복합동사는 형성원리로 보아 구형복합동사와 상복합동사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복합동사의 구성요소간의 순서를 지배하는 규칙이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Ⅳ. 복합동사의 구성순서

복합되는 동사간에는 순서가 있다. ‘홀러내리다’는 가능하나 ‘내려흐르다’는 불가하며 ‘홀러가다’는 가능하나 ‘가흐르다’는 불가하다. 이런점을 설명하기 위해 손호민(1976)에서는 국어 복합동사의 순서를 “행위>방향>이동>심리”¹³⁾로 규정하였다.¹⁴⁾ 그러나, 모든 복합동사가 이와같은 순서에 의해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뛰어건너다’와 ‘건너뛰다’라는 두 복합동사가 다 가능한 것이고 보면 위의 순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다다르게 된다. 뿐만아니라 ‘뛰어내려가보아버리고달았다’라는 복합동사는 구성순서를 벗어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국어 복합동사 구성순서를 아직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두 종류의 복합동사를 단일한 기준에 의해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다. 국어 복합동사의 구성순서는 두 종류의 복합동사로 나

13) 이는 ‘Activity>direction>motion>psychological’의 번역이다. Activity를 ‘행위’라고 한 것은 ‘Activity’가 ‘○○를 하는 것’이란 뜻에서이고, ‘motion’을 이동이라고 한 것은 ‘motion’이 공간에서의 ‘위치 변동’이란 뜻에서이다.

14) Abasolo(1977: 77)에서는 이와 달리 Chafe(1970)를 수용하여 국어복합동사의 구성순서를 행위·과정(Action Process)>행위(Action)>과정(Process)>상태(State)’라고 하였다. 그러나 Absolo(1977)는 동사분류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는 ‘있다’와 ‘지다’의 결합여부에 의해 동사를 분류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국어에서 ‘있다’나 ‘지다’의 결합 여부가 동사의 종류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있다’와 ‘지다’는 상복합 동사를 이루는 요소이다. ‘있다’는 ‘지속성’을 지닌 동사와 복합되고 ‘지다’는 ‘자동성’을 지닌 동사와 복합되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있다’와 ‘지다’와의 결합 여부만에 의해 동사를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뒤 설명해야 한다.

4.1. 구형복합동사의 구성순서

구형복합동사의 형성원리를 통해 구형복합동사의 구성동사순서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첫째 대개 타동사가 자동사에 앞선다. 타동사가 뒤에 오면 타동사의 목적어인 변항이 삭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복합동사의 뒤동사가 복합동사의 상의어이므로 의미상으로 뒤동사에 달리는 것이 앞에 놓인다. 이는 ‘수식>피수식’의 순서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순서는 손호민(1976)의 ‘행위>방향>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항상 고정된 순서가 아니다.

28) 그는 강을 건너(서), 뛰었다.

29) 그는 뛰어(서) 강을 건넜다.

29)' 그는 강을 뛰어(서) 건넜다.

28)에서 복합동사 ‘건너뛰다’가 형성될 수 있고, 29)가 삽입절을 지닌 복문으로 바뀐 29)'에서 복합동사 ‘뛰어건너다’가 형성될 수 있다. ‘뛰다’는 ‘행위’동사이고 ‘건너다’는 ‘방향’동사이다. ‘건너뛰다’는 손호민(1976)에 설정된 순서에 따르면 복합동사가 될 수 없어야 하고, ‘뛰어건너다’는 뒤동사가 타동사이므로 복합동사가 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시간상으로 앞선 것이 앞에 놓인다는 원리가 요구된다. 자연순서를 따른다는 것은 동일한 ‘행위’동사가 결합된 경우에서 잘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먹다’는 가능하나 ‘먹어따다’는 불가하다. 이는 ‘따는 것’이 ‘먹는 것’보다 앞선 행위이기 때문이다.

4.2. 상복합동사의 구성순서

구형복합동사의 뒤구성동사가 상복합동사의 앞구성동사이다. 상복합동사의 구성순서는 구성동사의 상적의미에 의해 결정된다. ‘V₁어 V₂’꼴 상복합동사는 상적의미에서 V₁이 V₂에 딸리므로, V₁에 V₂와 동일한 상적의미가 있어야 한다. 반면, ‘V₁고 V₂’꼴 상복합동사는 두 동사의 상적의미가 대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적의미의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두 동사가 공히 선택 제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딸립관계나 대립관계의 상복합동사가 형성된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딸립이나 대립이냐는 상복합동사의 맨앞구성동사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가고달아버리다’의 경우 ‘가고’의

‘-고’는 ‘가다’와 ‘말다’가 ‘지속’과 ‘순간’이란 점에서 대립되기 때문이고 ‘말아’의 ‘-아’는 ‘가다’와 ‘버리다’가 공히 ‘종결’이란 상적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상적 특성에는 ‘기동성, 순간성, 과정성, 종결성, 잠재성’ 등이 있는데,¹⁵⁾ 일반적으로 [-기동성]을 지닌 동사가 [+기동성]을 지닌 동사에 앞서고, [+과정성]이 [+순간성]에 앞선다. 그리고 동일한 상적특성을 지닌 것이면 순서는 가변적이다. [-기동성]이 앞선 것은 ‘끓어지다’에서, [+과정성]이 앞선 것은 ‘먹고말다’나 ‘먹고있다’에서 찾아볼 수 있고, 동일한 상적 특성을 지닌 것간의 순서가 일률적이지 않음은 ‘만들어버려놓다’와 ‘만들어놓아버리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순서가 가변적인 경우 앞선 것이 심리상 우선된 것이다. 이는 앞에 놓이는 것이 수식기능을 갖게 되고 수식기능을 지닌 것이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다. 상복합동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증은 다음기회로 미룬다.

V. 마 무 리

이 글의 목적은 현재 복합동사로 취급되는 것만 설명할 수 있는 복합동사의 형성원리를 밝히는 것과 상복합동사를 복합동사의 하나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논증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는 들머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1) 국어 복합동사는 구형복합동사와 상복합동사로 나눌 수 있다.

2) 구형복합동사는 접속문에서 변항삭제에 의한 인접원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변항이 삭제되지 않거나 삭제되어도 하나의 하위변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동사는 구형복합동사일 수 없다.

3) 상복합동사는 선택제약관계에서 긴밀한 관계에 있는 두 동사가 상적의미에서 팔리거나 대립된 관계에 있을 때 형성된다.

4) 복합동사는 뒤구성동사의 하의어이다. 구형복합동사는 어휘의미에서 뒤구성동사의 하의어이고 상복합동사는 상적의미에서 뒤구성동사의 하의어이다.

5) 구형복합동사를 구성하는 동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 결

15) 이에 대해서는 줄고(1986)에서 다룬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글(현재 국어동사의 상 연구—미발표)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된다. 첫째, 타동사가 자동사에 앞선다. 둘째, 종속된 것이 앞선다. 셋째, 자연시간의 순서를 따른다.

6) 상복합동사를 구성하는 동사는 [-기동성]을 지닌 것이 [+기동성]을 지닌 것에 앞서고 [+과정성]을 지닌 것이 [±순간성]을 지닌 것에 앞선다. 그리고 동일한 상적특성을 지닌 것간에는 말하느이의 뜻에 달렸다. 이때는 앞선 것이 새로운 정보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혁(1981), “국어 합성동사의 생성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논문.
- 김영희(1978), “삼입절의 의미론과 통사론”, 말3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김창섭(1981), “현대 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호.
- 남기심(1978), “‘아서’의 화용론”, 말3집, 연세대, 한국어학당.
- _____(1980), “연결어미 ‘고’에 의한 접속문에 대하여”, 제 1 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서정주(1978), “국어의 보조동사”, 언어 3—2, 한국언어학회.
- 손호민(1973), “Coherence in Korean ‘Auxiliary’ Verb Construction”,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 _____(1976), “Semantic of Compound Verbs in Korean”, 언어 1—1, 한국언어학회.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황병순(1985), “국어 양상구성소에 대하여”, 소당 천시권박사 회갑기념 국어학 논총, 형설출판사.
- _____(1986), “‘—아’와 ‘고’의 기능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김민수선생 회갑기념논총, 탐출판사.
- _____(미발표), “현대국어 동사의 상 연구”.
- Abasolo, R.(1977), “한국어 복합동사에 관하여”, 언어와 언어학 5집, 한국의국어대, 언어연구소.
- Chafe, W.L.(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yons, J.(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eper, T. & Siegel, M.E.A.(1978), “A Lexical Transformation for Verbal Compounds”, Linguistic Inquiry 9—2.